

## 8. 제주사(濟州史)와 함께 산 관덕정(觀德亭)<sup>11)</sup>

오랫동안 거푸집에 가렸던 관덕정(觀德亭)이 다시 제 모습을 드러냈다. 28억원을 투입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올(2006년) 8월까지 3년에 걸친 중수(重修)가 끝나 다시 옛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1448년(세종 30) 안무사(按撫使) 신숙칭(辛叔晴)에 의해 창건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5백 58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창건 때 건물이 없어졌다가 다시 복원된 것들은 볼 수 있지만 5백년 이상 된 건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생명력을 지켜온 것은 제주도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열 번에 걸친 중건(重建)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의 보수는

---

11) 『한라일보』(삼각봉), 2006. 08. 24 (목), 제주문화원장.

열한 번째의 중수였다. 이번 보수에서 무엇보다도 이슈가 된 것은 원형을 살려내자는 노력이었다. 관덕정의 경우 신석조(辛碩祖)의 창건기를 제외한다면 당초의 의궤(儀軌) 등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당시의 시방서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형이 이것이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창건기나 그 밖의 기록 등을 보아 본래 군사훈련을 하던 터에 세운 사정(射亭)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그 건물의 용도나 구조는 크게 틀리지 않게 재현시킬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관덕정에 관해서는 20세기 초에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나타나며 사람들은 그것이 원형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뒤 관덕정은 도청이나 도의회 등 청사로 이용되었던 것도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는 청사로 이용되기 이전에도 칸막이를 하여 이용되었던 흔적들이 나타난다. 일부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살려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타났다.

다행히 이번 공사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정리되어 시공되었는데 참으로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처마 길이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의 관덕정 공사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공사였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의 소중한 건물 유적을 보존시키는 의미 깊은 사업이었다고 생각된다.

관덕정에는 비해당 안평대군(匪懈堂 安平大君)의 “관덕정(觀德亭)” 편액과 목사 김영수(金永綏)의 “탐라형승(耽羅形勝)” 목사 박선양(朴善陽)의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과 함께 작자 미상의 벽화 8폭도 걸려 있다.



| 관덕정(제주시 삼도2동) | 1448년 제주안무사 신숙청이 창건하였으며, 1963년 보물 제322호로 지정됨.

모두가 한 시대의 예술을 증언해 주고 있는 소중한 작품들이라고 생각된다.

관덕정을 얘기할 때 흔히들 건물가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관덕정의 경우는 보다 더 깊은 사연이 흐르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관덕정은 사정으로 군사훈련도장으로 창건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일터로 쓰이기 시작했다. 탐라순력도에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승보시사(陞補試士), 전최(殿最), 양로연(養老宴), 공마봉진(貢馬封進), 감귤봉진(柑橘封進), 사회(射會), 풍악(風樂), 조점(操點)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조정이나 목의 중요한 행사나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

구나 민란이 일어났을 때는 목사나 관리를 성토했다는 현장이 되기도 하였다.

1862년 임술(壬戌)농민난과 1898년 방성칠난(房星七亂)이 일어났을 때 관덕정 광장은 성난 군중들이 목사와 관리들을 성토했다는 무대가 되었다. 또 1901년 신축(辛丑)민란이 일어났을 때는 장두 이재수(李在守)의 지휘로 천주교도 수백 명이 참살되는 비극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다.

관덕정은 섬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마다 도민들이 모여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했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관덕정은 건물의 의미뿐 아니라 제주근세사와 함께 산 역사의 현장이었다는데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